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武遺稿』에서의 素證에 관한 考察

김선민* · 송일병*

Abstract

A Study of ordinary symptoms in the Dongyi Soose Bowon¹⁾ Sasang Chobongyun and DongmuYugo

Kim Sun-min ·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1. Object of research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and DongmuYugo were written by Lee je-ma before Dongyi Soose Bowon. He explained in full detail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more than symptoms in Dongyi Soose Bowon. I tried to find his early medical views on Sasang Constitutional disease.

2. Method of research

It was researched as contents with his writing such as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and DongmuYugo.

3. Results and conclusions

- ① Dongmu was tried to explain the Sasang Constitutional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symptoms with ordinary symptoms. It is a his own implementation that he made an analysis of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 ② We can take advantage of the contents clinically which has full of expression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 ③ It is a guide post that can be expected the appearance of disease even if it were not in poor health

Key words : symptoms, the ingestive food metabolism, the Qi-yack metabolism

1. 緒 論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素證은 太少陰陽人이 평소 가지고 있는 病證인데, 이러한 자세한 素證이 『東醫壽世保元』에는 생략되고 完實無病, 恒心, 大病, 몇 가지 特異證

候 등만 기록되어 있다. 이 소증 자료들은 體質病證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골격이 되었고, 體質病證 속에는 輕重緩急의 요약정신이 들어 있고 素證의 여러 체험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東醫壽世保元』에는 자세한 素證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이 자료들은 무시되어 생략되고 몇 가지만 기록되어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김선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29-6 덕성한의원 전화) 825-6633 E-mail) ksm6633@yahoo.co.kr

있다.

東武公은 四象人이 평소 가지고 있는 生理現狀 또는 病理現狀을 四象人別로 요약하여 이것으로 四象病證을 설명하고 四象人끼리의 差等性을 비교 고찰해서 四象人을 감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기 이전의 주도면밀한 東武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東武公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이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하며¹⁾ 『東武遺稿』²⁾는 東武公이 남긴 원고를 제자들이 편찬한 것으로서 手寫本으로 전해 오다가 1966년 7월에 북한 보건성 동의간부양성소 사상반 명의로 謄寫版으로 간행된 것인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武遺稿』에 기재된 四象人의 素證에 관한 文句의 내용을 파악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1. 身體狀態의 表現

- 肺部盛則肩背暢 肺部衰則皮毛焦
- 脾部盛則胸膈通 脾部衰即肉理寒
- 肝部盛則兩脇張 肝部衰則筋脉酸
- 腎部盛則腰腸雄 腎部衰則骨髓枯
- 少陰人腸氣虛弱則百會穴必惡風
少陽人腸氣虛弱則膝脛必惡寒
太陰人腸氣虛弱則肩肉必瘦
太陽人腸氣虛弱則外腎必冷

四象人의 偏小之臟을 중심으로 해서 四體質에 입각한 素證을 언급한 것인데 四焦의 입장에서 肩背와 皮毛, 胸膈과 肉理, 兩脇과 筋脉, 腰腸과 骨髓의 盛衰를 가지고 生理상태나 건강상태를 쉽게 파악하여, 건강한 사람인지 조만간 病이 나타날 여건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고 각 체질의 취약점을 파악함으로써 臟腑의 성쇠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東武의 초창기 사상의학에서의 四象人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四焦의 입장에서 의 신체상태의 표현은 『東醫壽世保元』에 와서는 太陽人은 人稟臟理가 肺大肝小, 體形氣像은 腦額之起勢盛壯 腰圍之立勢孤弱으로 표현되고 少陽人은 脾大腎小 胸襟之包勢盛壯 膀胱之坐勢孤弱, 太陰人은 肝大肺小 腰圍之立勢盛壯 腦額之起勢孤弱, 少陰人은 腎大脾小 膀胱之坐勢盛壯 胸襟之包勢孤弱으로 표현된다. 太陰人이 건강하면 肩背에 여유가 있지만 病이 있다면 皮膚가 거칠어지고 生理적으로 老化해서 탄력을 잃게 되니 太陰人에게는 皮膚에서 病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 어깨가 처지거나 어깨 근육이 마르면 病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少陰人이 건강하면 胸膈通하고 즉 자세가 바로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추위에 민감하고 손발이 차며 百會穴부위가 惡風하니 이것은 氣가 약해질 때 오는 현상으로 본다. 太陽人은 건강하면 肝부위가 빈약하지 않고 넉넉하며 태양인의 體形氣像은 腰圍之立勢가 孤弱하므로 건강이 안 좋으면 肝부위가 더 약하게 보이며 팔다리가 저리니 解脬을 연상할 수 있다. 膀胱之坐勢가 孤弱한 少陽人은 腰腸이 웅장하게 보이면 건강한 것이고 건강이 안 좋으면 骨髓枯하니, 이것은 四肢중에 下肢쪽인 다리나 앞정강이가 아위고 약해지는 것이며 下體의 균형이 깨져 下焦쪽의 기운이 더욱 빈약해지고 위축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점점 쇠약해졌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위를 뜻하니 이런 것들을 통해 건강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

2. 心理상태의 表現

- 肺意快則能哭泣 肺意阻則怔忡作也
- 脾魄壯則能歌唱 脾魄蕩則悵亂作也
- 肝魂寧則能話談 肝魂淫則恍惚作也
- 腎志裕則能善笑 腎志促則健忘作也

이러한 표현은 恒心표현의 전 단계로서, 『東武遺稿』에서는 恍惚대신에 恒荒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³⁾ 『東醫壽世保元』에 와서는 『辨證論』에 精神의 입장에서 건강한 生理의 조건으로 四象人의 恒心을 말하고 있으니 太陽人의 急迫之心, 少陽人의 懼心,

1) 李壽瓊 :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Vol.11.No.1, 1999

2) 李濟馬 著 梁병무 차광석 譯 : 東武遺稿, 서울, 海東醫學社, 1999

3)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 譯 : 東武遺稿, 서울, 海東醫學社, p.160 “肝魂了 則恒荒作”

太陰人の 怯心, 少陰人の 不安定之心이다. 太陰人이 肺意가 弱하다 보면 哭泣하는데 있어서 기운이 약 하나까 우렁차지 않지만 肺의 기운이 충실하다면 우렁찬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太陰人の 恒心은 怯心인데 肺意가 저지되면 恒心이 깨져서 怯心이 怕心을 거쳐 怔忡이 오며 怔忡은 太陰人病에서 重症이다. 少陰人은 脾胃이 썩씩하면 能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放蕩하면 정신이 흐리고 어지러우며 手足紊亂症이 온다. 太陽人은 건강이 좋으면 他人과 어울려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나 적당하지 않고 넘치면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言行에 두서가 없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 恍惚은 急迫之心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少陽人이 여유가 있으면 잘 웃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유리하다는 것이고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陽人の 恒心은 懼心인데 懼心이 심해지면 恐心이 되어 健忘이 오며 健忘은 少陽人病에서 위험한 증세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생활습관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體質의 단서로 삼을 수 있고, 四象人の 心身의 양면적 입장을 표현하여 육체적 정신적 특징을 나타내는 자료들이다.

3. 건강조건에서 필수적인 조건

- 少陰人 飲食善化 則完實而無病
- 少陽人 大便善通 則完實而無病
- 太陰人 汗液通暢 則完實而無病
- 太陽人 小便旺多 則完實而無病

少陰人은 出放之氣 太過와 納積之氣 不足이므로 陽暖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飲食善化가 完實無病의 조건이 된다. 少陽人은 納積之氣 太過와 出放之氣 不足이므로 陰清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大便善通해야 完實無病하다. 太陰人은 吸聚之氣 太過와 呼散之氣 不足이므로 呼散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汗液通暢이 完實無病의 조건이 되며 太陽人은 呼散之氣 太過와 吸聚之氣의 不足으로 吸聚之氣가 保命之主가 되므로 小便旺다가 完實無病의 조건이 되니 保命之主가 충분히 갖추어지면 건강한 생리적 조건을 갖춘 상태이다.

4.面色에 따른 구분

- 少陰人 面色淡紫則無病 濁黃則有病

太陰人 面色潤紫則無病

少陽人 面色潤蒼則無病 白黑則有病

太陽人 面色淡白則無病 黑則有病

- 少陰之病 面色膩滓則其病進也
- 太陰之病 面色膩滓則其病退也

少陰人과 太陽人은 淡하고 少陽人과 太陰人은 潤하다. 몸이 마르고 知的으로 발달한 少陰人과 太陽人⁴⁾은 얼굴색이 윤기가 없이 淡紫 淡白으로 나타나고, 뚱뚱하고 行的으로 발달한 少陽人과 太陰人은 얼굴에 기름기가 보여 潤蒼 潤紫로 나타난다. 太陽人과 少陽人은 흰색이 정상인데 검은색을 띠면 건강이 안 좋고 少陰人이 비대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되면 좋지 않다. 少陰人의 얼굴은 淡한 것이 無病인데 少陰人病에서 얼굴에 기름때가 있다면 病이 악화되고 太陰人病에 얼굴에 기름때가 있다면 病은 낫는다.

5. 體格에 따른 구분

- 太陽人少陰人 膚肉清瘦則無病 濁肥則有病.
- 太陰人少陽人 膚肉濁肥則無病 清瘦則有病.

知的으로 발달한 太陽人과 少陰人은 몸이 마르면 정상이고 비대해지면 좋지 않으며, 行的으로 발달한 사람인 太陰人과 少陽人은 살지면 정상이고 바짝 마르면 병이다.

6. 睡眠상태에 따른 구분

- 太陽少陽 寢眠呼吸緩端寬臥靜重則吉
- 太陰少陰 寢眠呼吸洪壯轉輾有力則吉

太陽人과 少陽人이 조용히 자면 吉하다는 것은 陽人이 陰氣運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고, 太陰人과 少陰人은 뒤척이며 자야 吉하다는 것은 조용히 자야 할 陰人이 陰中에 陽氣運이 있으므로 뒤척일 힘이 있 다는 것이니 그만큼 생활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四統: 太陽之知, 知而過也, 衆人之過於知者易爲詐也. 少陰之知, 愚而不及也, 衆人之愚而不及者易爲僞也. 太陰之行, 賢而過也, 衆人之賢而過者易爲侈也. 少陽之行, 不肖而不及也, 衆人之不肖而不及者易爲懶也. 夫子之周遍立於道也, 立於道者立於身也, 太陽之象也. 曾子之治平明於德也, 明於德者明於心也, 少陰之象也. 孟子之雄辯言於善也, 善也者善於事也, 太陰之象也. 子思之中庸行而誠也, 誠也者誠於物也, 少陽之象也.

7. 땀에 따른 구분

-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太陽人과 太陰人은 氣液之氣病證을 가진 체질이므로 땀이 많다면 氣液之氣가 충분히 있고 소통이 되는 것이니가 無病한 것이고, 氣液之氣와 관련 없이 水穀之氣病證을 가진 少陽人과 少陰人에게 땀이 많다면 기운 손상이 되니가 病이 된다. 특히 少陰人의 땀을 경계한 이유는 본래 升陽之氣가 부족하고 脾胃가 허약하므로 陽虛하기 쉬워 少陰人이 땀을 내는 것은 陽虛가 더욱 심해진 것이고 특히 땀이 계속하여 많이 나오면 陽이 虛脫狀態로 빠진 것을 의미한다.”

- 少陰人之急病 欲占其吉凶則
當視於人中之汗不汗也
少陽人之急病 欲占其吉凶則
當視於肘外之汗不汗也
太陰人之急病 欲占其吉凶則
當視於觀上之汗不汗也
太陽人之急病 欲占其吉凶則
當視於外腎之汗不汗也

少陰人의 病이 낫는 경우의 땀은 陽氣가 위로 올라가서 人中에서 땀이 나는 것이고 少陽人은 肘關節밖에서 땀이 나면 좋다고 했는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陰氣가 아래로 내려가서 手足掌에 땀이 나면 病이 나올 거라고 말했으며 太陰人의 觀上之汗은 삶의 길이 활짝 열린 땀이고 太陽人은 肝기운이 충분할 때 足厥陰肝經부위인 생식기부위에서 땀이 난다.

- 太陰人急病 身冷而全體四肢俱大汗者 危證也。
但身溫而頂觀項背次第得汗者 吉兆也。
太陰之汗 始於頂者可喜也。
中於觀者免危也。
終於背者病愈也。

땀이 나면 열이 적당히 풀어지는데 太陰人의 急病에서 身冷할 정도로 全身에서 동시에 大汗하면 너무 지나치니가 危證이 되고, 몸이 따뜻하면서 정수리 觀骨부위 背部位의 순서로 땀이 나와 좋다.

8. 大小便의 상태에 따른 구분

- 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吉
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不吉

生理적으로 땀과 소화는 陽이고 대소변은 陰이 되는데, 陽人은 陰에 해당하는 취약점이 있는 체질이므로 便秘나 小便을 못 볼 수 있는데 陽人이 陰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취약점을 극복하고 조절할 수 있으므로 吉하다.

- 少陰人 有暴泄泄瀉過三日則 其病必重
少陽人 有久泄泄瀉雖月餘 其病輕也
少陰人이 暴泄을 3일이 지나도록 하면 病이 重하고, 少陽人은 설사를 1개월간 하더라도 病이 가볍다 『東醫壽世保元』에는 少陰人이 泄瀉不止면 臍下가 必如氷冷이라 하였고 少陰人의 腹痛泄瀉는 大病이라 하였다.

○ 少陽人 大便澀滑者病也 一日間屢次則非惡症也.
少陽人이 大便을 시원하게 못 보면 病이고, 하루에 여러 차례 보면 병세가 더 심해지지 않는 大便이니 惡症이 아니며, 결국 少陽人은 大便을 잘 보면 좋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陽人이 大便不通하면 胸膈이 必如烈火라고 하였고 大便不通은 大病이다.

○ 問:水穀之入于腸胃也, 爲其所化一也, 而少陽驅穀常病于熱, 少陰驅穀常病于寒者何也.

曰:少陽人水穀之胃潤而泄穀之大腸窄, 譬如甕中酒釀宿釀密封則熱氣易生也. 少陰人泄穀之大腸潤而水穀之胃窄, 譬如停溜之水泉生泉益來則寒氣易生也, 是故, 少陽大便一日數三次益好, 少陰大便二三日一次無妨.

少陰人은 水穀之氣의 出納과정에서 생긴 病증을 가지며 出放之氣가 많고 納積之氣가 적은 특징을 띠고 陷降하는 기운의 특성이 있어 구조적으로 下陷하는 病證과 기능적으로 속이 찬한 胃寒病證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少陰人의 泄瀉는 寒으로부터의 泄瀉이고 暴泄이 지속되면 병이 重하니 急治해야 되며 下陷된 기운을 상승시키고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도와 속이 찬 특성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少陽人은 水穀之氣의 出納에서 納積之氣는 많으나 出放之氣가 적고 橫升하는 기운과 구조적으로 裏熱病證, 기능적으로 火熱病證의 특성이므로 胃熱便秘가 있게 되고 大便不通의 상태가 되면 大病의 비건강상태로 발현된다. 따라서 少陽人은 大便을 자

5)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著: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155

주 보면 좋고 비록 久泄이 있더라도 少陰人에 비해 病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少陰人에게 泄瀉가 없거나, 少陽人의 大小便이 快할 때 그 중에서도 大便이 잘 통할 때는 病이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 太陽人小便澁短者病也 二時間屢次則 非惡症也

太陽人의 小便이 澁短하면 病이고 두 시간 동안에 小便을 여러 번 보면 惡症이 아니라 하였으니 소변이 나가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다. 태양인은 呼散之氣는 많고 吸聚之氣는 적어서 기운이 밖으로만 나가므로 中氣가 虛하고 津液이 고갈되며 下虛上實의 상태이니 固中시키고 保命之主인 吸聚之氣를 도와 補肝生陰하고 위로 올라가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아래로 내려 小便이 잘 나가야 한다.

○ 少陽人病 小便赤黃則 其病進

太陽人病 小便赤黃則 其病退也

少陽人病에 소변이 赤黃하면 浮腫이 맺혀지게 되니 病이 악화되고 太陽人病에서는 病이 낮은 것이다.

9. 病의 정도에 따른 구분

1) 少陰人

○ 少陰人病中雄壯叫呼 喜欲冷水者則 其病雖重終當效也

少陰人이 病中에 목소리가 우렁차고 찬물을 먹는 것은 脾氣가 충실한 것이므로 병이 重해도 낫는다.

○ 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其病進也 而少陰尤甚也. 嘔逆吐食者,其病退也 而太陰人尤速也.

太陰人病 少陰人病에서 下利後重하면 病이 진행되는데 少陰人이 더 심하고 嘔逆吐食은 病이 낮은 것인데 太陰人이 더 빨리 물러간다. 呼散之氣가 부족한 太陰人에게 嘔吐가 있다면 呼散之氣가 충실해지는 것이다.

○ 太陽少陰天行時氣十日內 病症有進無退則 其病必死.

知的으로 발달한 太陽人과 少陰人은 체력이 약하니까 溫病이 10일 내에 악화되고 회복이 안되면 죽으니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 少陰人平時屢噫者病也 霍亂時屢噫者病解也.

少陰人이 평소에 자주 트름을 하면 病이지만 霍亂이 있을 때는 자주 트름이라도 나오면 病이 낫는다.

○ 少陰人病中 咳靜時快則 脾氣旺也.

少陰人이 病中에 기침을 여유있게 하고 때로는 쾌활해진다면 脾氣가 왕성한 것이므로 그 기침은 조절이 가능한 기침이고 곧 좋아질 것이다.

○ 少陰人病 間間泄瀉而咳靜雄壯則 其病非重症也 七分輕也.

少陰人의 病에 간간이 泄瀉하면서도 여유있는 기침을 하고 기침소리가 웅장하면 氣가 有餘한 것이므로 重症은 아니고 70%는 輕症이다

○ 少陰人 頭痛發熱病 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也.

少陰人의 頭痛發熱은 찬 설사보다는 가벼운 병이다.

○ 少陰人 頭痛病 氣色屢變則 其病非輕症也 十分重症也.

少陰人 頭痛病에서 氣色에 자주 변화가 오면 그 病은 완전히 重症이다.

○ 少陰人 瘧疾發熱時 飲冷水 惡寒時 不飲冷水.

少陰人 瘧疾에서 發熱이 있을 때는 찬물을 마실 수 있고 惡寒이 있을 때는 찬물을 못 마신다.

○ 太陽太陰少陰人 喜飲冷水者 臟氣生發之徵也.

太陽人 太陰人 少陰人이 찬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臟氣의 生發之氣가 있는 좋은 징조이다.

2) 少陽人

○ 少陽人病中 沈潛安靜 稍稍進食者則 其病雖重終當效也.

少陽人이 病中에 심리상태가 조용히 안정할 수 있고 밥을 조금씩 더 먹을 수 있다면 병이 重해도 나중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太陽少陽之病 唯嘔逆吐食者 其病進也 而少陽人尤甚也. 下利後重者 其病退也 而太陽人尤速.

太陽人病, 少陽人病에서 嘔逆吐食은 病이 악화되는 것인데 少陽人이 嘔吐가 있다면 大熱이 있는 것이니 少陽人이 더 심한 것이고, 下利後重은 病이 물러가는 것인데 太陽人이 더 빠르게 물러간다. 太陽人은 변이 묽어야 좋고 太陽人이 변을 쉽게 본다는 것은 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 太陰少陽天行時氣二十日內 病症有進無退則 其病必死.

太陰人 少陽人의 溫病이 20일내에 病證이 악화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죽는다. 太陰人과 少陽人은

행이 발달한 사람으로서 체력이 있으므로 知的으로 발달한 太陽人 少陰人보다 10일을 더 견딜 수 있다.

○ 少陽人病中 放氣出緩則 腎氣不促也.

少陽人의 病中에 방귀가 완만하게 나가면 腎氣가 느긋한데 이것은 出放之氣가 충실하다는 뜻이다.

○ 少陽人腹痛滯病 病則病也 比之汗咳則輕症也.

少陽人의 腹痛과 滯病은 病은 病이지만 감기 기침병보다는 가벼운 증상이다.

○ 少陽人病 間間咳嗽而善食身冷則 其病非重也 七分輕也.

少陽人病에 간간히 기침하면서 밥을 잘 먹고 몸이 덥지 않으면 그 병은 重하지 않고 70%는 輕症이다.

○ 少陽人帶痢病 浮腫有漸則 其病非輕症也 十分重症也.

少陽人의 帶痢病에 점점 浮腫이 있게 되면 그 병은 輕症이 아니라 완전한 重症이니 少陽人의 浮腫은 아주 안 좋다. 少陽人 表病의 浮腫은 급히 치료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위태롭다. 痢疾은 結胸症에 비하면 順한 증세라 하겠으나 痢疾을 重症으로 생각함은 浮腫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⁶⁾

○ 少陽人 喜飲冷水者 病氣橫侵之兆也

少陽人에게 찬물이 더 먹히는 것은 속에 熱이 있기 때문이므로 病氣가 악화되는 징조이다.

病의 진행속도는 體質에 따라 다르니 소양인의 胸膈熱證은 病이 발생하자마자 처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胸煩悶躁의 기미가 있지만 그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執證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藥을 쓰는 일이 늦어진다. 한편 少陰人 裏寒病에 아랫배가 찬 증세는 病이 발생하자마자 이미 배가 끓고 泄瀉할 기미가 보여 쉽게 執證할 수가 있으므로 빨리 藥을 쓸 수가 있다.⁷⁾

○ 太陽病 以太陽藥投之 而病勢益劇有加無減者 臟氣已竭而其病不治 太陰少陽少陰倣此

體質에 맞는 體質藥을 썼는데도 病勢가 악화된 것은 臟氣가 이미 고갈되어 治할수 없다는 것이니 臟氣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執證을 하여 빨리 藥

을 써야 함을 말한다.

3) 太陰人

○ 太陰人病中 身濕有汗則 其病雖重終當效也

太陰人에게 땀이 있다면 氣液之氣가 소통되는 것이므로 병이 重하더라도 낫는다.

○ 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 而少陰尤甚也. 嘔逆吐食者 其病退也 而太陰人尤速也.

太陰人病 少陰人病에서 下利後重하면 병이 악화되는데 少陰人이 더 심하고, 嘔逆吐食하면 병이 낫는데 太陰人이 더 빠르다. 太陰人은 呼散之氣가 부족한데 嘔吐가 있다면 呼散之氣가 충실한 것이다.

○ 太陰人 平時屢咳者 病也 重病時屢咳者 病解也.

太陰人이 평소에 자주 기침을 하면 病이고, 重病이 있을 때 기침을 하면 病이 낫는다.

○ 太陰人病中 噫氣出張則 肺氣不抑也.

太陰人이 病中에 게트름을 크게 하면 肺氣가 充實하다. 이것은 呼散之氣가 충실한 것이다.

○ 太陰人 瘧疾惡寒時 飲冷水 發熱時 不飲冷水

太陰人이 瘧疾惡寒이 있을 때는 찬물을 먹을 수 있고 發熱이 있을 때에는 찬물을 못 마신다.

4) 太陽人

○ 太陽人病中 胸痛利泄者 其病雖重終當效也

太陽人의 病中에 胸痛과 利泄이 있으면 小腸의 裏氣가 充實한 것이니 병이 重해도 낫는다.

○ 太陽少陽之病 唯嘔逆吐食者 其病進也. 而少陽人尤甚也. 下利後重者 其病退也. 而太陽人尤速.

太陽人病 少陽人病에서 오직 嘔逆吐食이 있으면 병이 악화되는데 少陽人이 더 심하고 下利後重은 병이 낫는 것인데 太陽人이 더 빠르다. 太陽人이 腹痛 腸鳴 泄瀉 痢疾의 증이 있다면 小腸의 裏氣가 충실한 것이니 그 病은 쉽게 치료되고 완전히 건강해진다.⁸⁾

○ 太陽人病中 噯響累發則 肝氣立也.

태양인이 病中에 채채기를 자주 하면 肝氣가 흠어지지 않고 충실한 것이니 좋다.

6) 東醫壽世保元·少陽人泛論：浮腫爲病 急治則生 不急治則危 痢疾之比結胸則痢疾爲順證也 而痢疾之謂 重證者 以其與浮腫相近也

7)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역음：四象醫學，서울，集文堂，1997，p.205

8) 東醫壽世保元·太陽人內觸小腸病論：太陽人 若有腹痛腸鳴 泄瀉痢疾之證 則小腸裏氣充實也 其病易治 其人亦完健

10. 吉症 凶症에 따른 구분

○ 少陽人重病中 無口味 忽大飽食 有口味者 此壞症也. 循衣摸床諸般凶症 不遠皆偏而必死 但稍稍小食吉兆也.

少陽인이 重病中에 식욕이 조금씩 서서히 당기는 것은 좋지만 갑자기 많이 먹는 것은 안 좋은 증상이다. 少陽인이 몸과 寢床을 손으로 더듬는 것 같은 非理性的인 행동을 한다면 걸으로는 빼돌어지지 않게 보여도 죽으니, 少陽人의 懼心이 恐心에 이르게 되면 大病이 일어나 健忘이 될 것이니 健忘은 險證이다.

○ 少陽人重病中 膚肉肥而形氣萎憊者 非危證也 卽安證也 腐肉瘦而精神醒爽者 非差症也 卽燥症也.

少陽인이 重病中에 뚱뚱하고 피곤한 것은 危證이 아니고 安證이다. 몸이 마르고 정신이 멀정해서 말이 많아진다면 熱이 있다는 의미이니, 나아지는 病證이 아니라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病證이다.

○ 少陽人 面色靑而精神昏沈者 非歇症也 卽陷證也.

少陽인이 얼굴색은 환한데 정신이 어두워지고 가라앉으면 잠시 쉬는 症이 아니라 위험에 빠질 症이다

○ 少陽之冷滯 少陰之燥渴 太陽之大便不通 太陰之小便秘澀雖非渴症 終非危證

○ 少陽之面腫 少陰之眩暈 太陽之食張 太陰之昏倦眞是重症 終非輕證

少陽人의 冷滯, 少陰人의 燥渴과 太陽人의 大便不通, 太陰人의 小便秘澀은 病은 病이지만 危證까지는 가지 않으니 심각한 病은 아니고, 少陰人이 어지러운 증상과 少陽人이 脾胃에 熱이 있어 얼굴이 붉는 증상과 知的인 체질이라서 많이 먹지 않는 太陽人이 밥 먹고 배가 불러지는 증상과 太陰人의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은 重한 증상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太陽人이 八九日 大便不通해도 小便旺多하면 非殆證이라고 하였다.

○ 少陰人重病中 面色紫而形氣煩憊者 非凶證也 卽吉證也

少陰人이 重病中에 얼굴이 검붉고 모양과 기운이 번거롭고 노곤한 사람은 凶證이 아니고 吉證이다.

○ 眼明手捷 少陰之吉祥

能食安寢 少陽之吉祥

肉肥汗多 太陰之吉祥

肉瘦溺數 太陽之吉祥

○ 精神陷短 少陰之凶證

肉脫鮮食 少陽之凶證

語靜微弱 太陰之凶證

肉浮多食 太陽之凶證

少陰人에게 눈이 밝고 四肢가 민첩하다는 것은 脾胃之氣가 충실하다는 뜻이니 좋으나 知的 체질인 少陰人의 정신이 陷短한 것은 나쁘다. 行的인 체질의 少陽人이 잘먹고 잘 자는 것은 좋지만 몸이 마르고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은 凶證이다. 太陰人에게 땀이 많다는 것은 氣液之氣의 순환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이니 좋고, 말하는 것이 微弱하면 凶證이다. 太陽人은 몸이 마르고 小便이 잘 나가면 좋은 조짐이고 살이 찌면서 많이 먹는 것은 나쁜 증상이다.

11. 太陰人과 太陽人의 비교

○ 太陰人 有夢泄其證自尋常

太陽人 有夢泄其症不尋常

太陰人에게 夢泄은 보통이지만 太陽人의 夢泄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太陰人과 太陽人에게 같은 氣液之氣병증이지만 太陽人의 夢泄은 심상치 않은 證이다.

○ 太陽人 有腹痛病限必神速

太陰人 有腹痛病限必遲滯

太陽人에게 腹痛이 있을 때 病의 진행속도가 빠르니 病의 존재를 금방 알 수 있고 서둘러 治해야 하며 太陰人의 腹痛에서는 病의 진행속도가 느리므로 病도 늦게 파악되며 치료도 여유가 있으니, 太陰人은 체력이 뒷받침되는 行的인 체질이지만 太陽人은 체력이 떨어지는 知的인 체질이므로 抗病力이 안생겨 病限이 길면 좋지 않다.

12. 陽人의 비교

○ 太陽之人形證 平居鼻涕絶少而大便罕泄

少陽之人形證 運氣頭頂必強, 鼻梁必淵

太陽人의 形證은 평소에 콧물도 잘 안 나고 泄瀉도 어렵고, 少陽人의 形證은 감기 걸렸을 때 他人에 비해서 정수리가 뻗뻗해지고 콧물이 잘 난다.

13. 執證에 의한 구분

○ 太陰之執證 若有可疑則 當占于六脉之緊長

少陽人之執證 若有可疑則 當占於夜睡之盜汗也

少陰之執證 平居呼吸如常而 有時有太息

太陽之執證 平居飲食如常而 有時有就嘔逆

太陰人에게는 緊脈과 長脈이 있고, 少陽人은 더위를 못 참으니가 잘 때 盜汗이 있고 保命之主인 陰淸之氣가 어떤 원인으로 부족하게 되면 裏熱이 지나치게 되어 盜汗이 나타난다. 少陰人은 평소에 호흡이 고르나 간혹 큰 한숨을 쉬는 때가 있으며, 太陽人은 평소에 잘 먹는데 이유 없이 가끔 헛구역이 있으니 이것을 잘 보아서 헛구역이 있다면 太陽人일 가능성이 있다.

<東武遺稿>9)

○ 肺分實則肩背寬 脾分實則胸胃寬 肝分實則脇腸寬 腎分實則腕臂寬

肺分虛則皮毛焦 脾分虛則肉理寒 肝分虛則筋脉酸 腎分虛則骨髓枯

이 내용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나타난 신체상태표현과 거의 같다.

○ 肺意決則能哭泣 脾魄壯則能歌唱 肝魂定則能言談 腎志裕則能嘻笑

肺意阻則怔忡作 脾魄蕩則悵亂作 肝魂了則惺荒作 腎志促則健忘作

이 내용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나타난 심리상태의 표현과 같으나 여기에 표현된 惺荒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는 恍惚로 쓰여 있다.

○ 太陰少陰人 眠時 呼吸雄大 能轉輾而確壯則吉也 眠時 呼吸微細 不能轉輾而沈潛 則凶也

太陰人과 少陰人은 잘 때 呼吸이 시원하고 크며 뒹굴면서 확실히 씹씩하게 자면吉한 것이고, 잘 때 호흡이 미약하고 가늘며 뒹굴지 못하고 잠긴 듯이 조용히 자면凶한 것이다.

○ 太陽少陽人 眠時 呼吸沈潛 轉輾不頻 則吉也 眠時 呼吸雄大 轉輾煩促 則凶也

太陽人과 少陽人은 잘 때 호흡이 가라앉아 잠잠하고 자주 뒤척이지 않으면吉하고, 잘 때 호흡이 시원하고 크며 뒤척이면서 답답해 하고 재촉하듯이 자면凶한 것이다.

○ 太陰少陽人 肥吉而瘦凶也 太陽少陰人 瘦吉而肥凶也

太陰人과 少陽人은 살지면吉하고 마르면凶하며, 太陽人과 少陰人은 마르면吉하고 살지면凶하다.

○ 太陰人病時 有汗 則其病雖重 終當勿藥而自效也 太陰人에게 病이 있을 때 땀이 있으면 그 병이重하더라도 끝까지 藥을 안써도 저절로 낫는다.

땀이 난다는 것은 呼散之氣가 충실하여 氣液之氣가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 少陰人病時 屢飲冷水 則其病雖重 終當勿藥而自效也

少陰人이 病을 앓을 때 자주 冷水를 마시면 병이重하여도 끝까지 藥을 안 써도 스스로 낫는다.

○ 少陽人病時 有口味 則其病雖重 終當勿藥而自效也

少陽人이 病을 앓을 때 입맛이 있으면 그 병이重해도 끝까지 藥을 쓰지 않고 저절로 낫는다.

○ 太陽人病時 有腹痛泄痢 則其病 終當勿藥而自效也

太陽人의 病에서 腹痛 泄瀉가 있으면 그 병도 藥을 쓰지 않고 스스로 낫는다.

○ 少陽人傷寒始末 則少陽人腰腹有水飲壅遏 而熱氣上而鬱壅 大小便不快 第一凶症也

少陽人 傷寒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보면 少陽人의 허리와 배에 水飲이 막혀 정체되어 있고 熱氣가 위로 올라와 막혀 급하며 大小便이 시원하지 않은 것이 첫째가는 凶症이다.

○ 少陽人傷寒症 大小便不快 身熱之症 與少陰人傷寒 泄瀉多數身冷之症一般 不急治 則似十無一生

少陽人의 傷寒症에서 大小便이 시원치 않고 몸에 熱이 있는 증상은 少陰人 傷寒에서 泄瀉가 많고 몸이 찬 것과 마찬가지로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열명 중에서 한 명도 못 살만큼 重한 증상이다.

少陽人은 納積之氣가 太過하고 出放之氣가 不足하므로 大腸은 水穀의 陰寒之氣를 出放하는 힘이 부족하면 胃中의 水穀을 納하는 陽熱之氣가 必盛하므로 少陽人이 大便不通하면 胸膈이 必如烈火하고, 少陰人은 出放之氣가 太過하고 納積之氣가 부족하므로 胃는 水穀의 陽熱之氣를 納하는 힘이 부족하면 大腸의 水穀을 出하는 陰寒之氣가 必盛하므로

9) 李濟馬 著 梁병무 차광석 譯 : 東武遺稿, 서울, 海東醫學社, 1999

少陰인이泄瀉不止하면 臍下가 必如水冷하다. 保命之主가 부족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特異病證을 나타낸다.¹⁰⁾

○ 少陰人不泄瀉 則其病日盡則自愈 少陽人大小便快 則其病日盡則自愈

少陰인에게泄瀉가 없으면 그 병은 하루 지나면 스스로 낫고, 少陽인에게서 大小便이 시원하게 나오면 그 병도 하루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 少陰之憂 在於泄瀉 少陽之憂 在於大便不通 太陰之憂 在於頭面不發汗 頂上汗出與不出也

少陰인의 우려는泄瀉에 있고 少陽인의 우려는大便不通에 있고 太陰인의 우려는 머리와 얼굴에 땀이 나지 않는 것과 정수리에 땀이 나거나 나지 않는 것에 있다.

○ 太陰人頂上發汗 而始免危也 至背則快免危

太陰인은 정수리에서 땀이 나면 비로소 위험을免하고 등까지 땀이 나면 쾌히 위험을免한다.

○ 少陰人 人中發汗 則始免危也

少陰인은 人中에서 땀이 나야 비로소 위험을 면한다.

○ 少陽人 肩膈出汗 則始免危 大便通利 則快免危 少陽인은 어깨와 팔꿈치에서 땀이 나면 비로소 위험을 면하고 大便이 잘 통하면 쾌히 위험을 면한다

○ 少陽人 其病雖重 能進飲食 則十全無憂也 少陰人 其病雖重 而能飲冷水 則其病無憂也

太陰人 其病雖重 而語聲緩壯 則其病十全無憂也 少陽인이 그 병이 비록 重해도 能히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전혀 우려할 것이 없고, 少陰인은 병이 重해도 能히 찬물을 마실 수 있으면 그 병은 우려할 것이 없고, 太陰인의 병이 重해도 말소리가 느리면서 씩씩하면 그 병은 전혀 우려할 것이 없다.

○ 少陽少陰人 無汗則吉 太陽太陰人 有汗則吉

少陽인과 少陰인은 땀이 없으면吉하고 太陽인과 太陰인은 땀이 있으면吉하다.

○ 太陽少陽人 呼吸安靜 臥眠時 不輾轉則吉

太陰少陰人 眠時 呼吸雄壯 輾轉反側則吉

太陽인과 少陽인은 호흡이 편안하고 조용하며 누워 잘 때 뒤척이지 않는 것이吉하고, 太陰인과 少

陰인은 잘 때 호흡이 크고 씩씩하며 덩굴면서 자는 것이吉하다.

○ 太陰人 病將愈時 有咳嗽者 不治而自愈也

蓋太陰人咳嗽 不足驚訝也

少陽人腹痛 不足驚訝也

少陰人煩渴 不足驚訝也 皆其病自愈之兆也

太陰인에게서 병이 장차 나오려고 할 때 기침이 있는 것은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오니 太陰인의 咳嗽은 놀랄 필요가 없고, 少陽인의 腹痛도 놀랄 필요가 없으며 少陰인의 煩渴도 놀라고 의아할 필요가 없으니 그 病이 스스로 나오려는 징조이다.

III. 總括 및 考察

四象醫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病이라도 체질에 따라 病證을 구분하고 治療를 다르게 한 것이다.

太陽人 噎膈과 비교하여 少陽人 嘔吐는 熱證을 동반하고 少陰人 嘔吐는 寒證을 동반하고 太陰人 嘔吐는 病이 낫는 것으로 體質에 따라 동일한 病에서도 발현되는 증상이 다를 수 있고 각 體質의 素證은 病證발현에 차이를 유발하여 素證은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출발점이 된다.

病證이 발생하는 것은 체질적인 素因인 평소 지니는 素證을 바탕으로 발생하니 太陰人 表病에서 瘟疫은 먼저 그 사람의 素病이 어떤가를 살펴보아야 表裏虛實을 알 수 있고 素病이 寒한 者가 瘟疫에 걸리면 역시 寒證이 되고 素病이 熱한 者가 瘟疫에 걸리면 역시 熱證이 되고, 素病이 가벼운데 瘟疫에 걸리면 重證이 되고 素病이 重한 者가 瘟疫에 걸리면 險證이 된다¹¹⁾라 하여 평소의 素證에서 한 단계 진행되어 病證이 발생되니 素證에 따른 病證 발현의 단계를 알 수 있고, 동일한 病證이라도 素證의 寒熱에 따라 病證의 寒證, 熱證 발현의 특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本論의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표1>과 같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病變編에는 體質素

10)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124

11) 東醫壽世保元·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 大凡瘟疫 先察其人素病如何 則表裏虛實可知已 素病寒者 得瘟疫則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瘟疫則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瘟疫則重證也 素病重者 得瘟疫則險證也

표 1.

		水穀之氣病證		氣液之氣病證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身體狀態	盛	胸膈通	腰腸雄	肩背暢	兩脇張
	衰	肉理寒 百會穴必惡風	骨髓枯 膝脛必惡寒	皮毛焦 肩肉必瘦	筋脉酸 外腎必冷
心理狀態	正常	歌唱	善笑	哭泣	話談
	異常	悵亂	健忘	怔忡	恍惚
完實無病		消化	大便	汗	小便
面色	無病	淡紫	潤蒼	潤紫 膩澤則其病退	淡白
	有病	濁黃 膩澤則其病進	白黑		黑
體格	無病	清瘦	濁肥	濁肥	清瘦
	有病	濁肥	清瘦	清瘦	濁肥
睡眠狀態	吉	呼吸洪壯 轉輾有力	呼吸緩端 寬臥靜重	呼吸洪壯 轉輾有力	呼吸緩端 寬臥靜重
	凶	呼吸微細 不能轉輾而沈潛	呼吸雖大 轉輾煩促	呼吸微細 不能轉輾而沈潛	呼吸雖大 轉輾煩促
땀	無病	乏汗	乏汗	多汗	多汗
	有病	多汗	多汗	乏汗	乏汗
	吉兆	人中之汗出	肘外之汗出	觀上之汗出	外腎之汗出
大小便	吉		滑利		滑利 小便赤黃
	不吉	滑利	澀滑 小便赤黃	滑利	小便澀短
嘔吐		病退	病進	病退	病進
執證		有時有太息	夜睡之盜汗	緊脈 長脈	有時有就嘔逆
病	輕	間間泄瀉而咳靜雄壯 頭痛發熱 燥渴	間間咳嗽而善食身冷 腹痛滯病 冷滯	小便秘澀	大便不通
	重	頭痛病氣色屢變 眩暈 冷泄	滯痢病浮腫有漸 面腫 汗咳	昏倦	食張
病	進	下利後重	小便赤黃 嘔逆吐食	下利後重 平時屢咳	嘔逆吐食
	退	雄壯叫呼 喜飲冷水 嘔逆吐食	下利後重	嘔逆吐食 重病時屢咳	小便赤黃 下利後重
病	吉	眼明手捷 喜飲冷水 病中咳靜時快 霍亂時屢噫 面色紫而形氣煩懣	能食安寢 沈潛安靜稍進食 放氣出緩 膚肉肥而形氣萎懣	肉肥汗多 語聲緩壯 身濕有汗 喜飲冷水 噫氣出張	肉瘦溺數 胸痛利泄 喜飲冷水 噫響果發
	凶	精神陷短 身冷泄瀉多數 平時屢噫	肉脫鮮食 喜飲冷水 大飽食 循衣摸床 膚肉瘦而精神醒爽 身熱大小便不快 面色青而精神昏沈	語靜微弱	肉浮多食

證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나 『東醫壽世保元』에 와서는 거의 생략되고 恒心, 完實無病, 大病, 몇 가지 特異證候 等만이 기록되면서 體質病證論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少陰人是 땀이 많으면 有病이라 했지만 病이 나아져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人中汗은 陽熱之氣가 상승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便秘에 대한 언급보다는 少陰人의 우려는 泄瀉에 있다고 할 정도로 泄瀉에 대한 언급이 많고 주로 寒冷과 관계가 있는데 少陰人의 泄瀉는 大腸의 陰寒之氣가 가장 주된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몸이 마르고 消化가 잘 되며 泄瀉가 없고 脾氣가 충실하면 좋은 상태로 보았다. 少陽人은 納積之氣는 많고 出放之氣는 적으므로 大便을快히 볼 수 있어야 하고 음식은 조금씩 잘 먹으며 몸이 덥지 않고 마르지 않아야 좋고, 裏熱이 쌓이거나 大便不通 浮腫 健忘 등이 病이며, 마음이 沈潛安靜한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精神昏沈은 陷證이다. 汗多도 少陰人과 마찬가지로 有病이라 했으며 병이 풀리는 과정의 땀으로서 肘關節 밖의 땀을 말했고 少陽人 判別을 위한 執證으로 盜汗을 언급했다. 太

陰人은 汗出이 잘 되면 完實無病이라 할 정도로 汗出과 관계가 깊으니 氣液之氣病證을 가진 太陰人에게 喘은 呼散之氣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汗出로 병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다. 즉 發汗의 위치로 정수리 觀骨部位 背部의 순서로 喘이 나면 위험을 免하고 병이 낫는다고 했다. 嘔吐나 게트름 또는 重病이 있을 때의 기침도 呼散之氣가 충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좋은 징조로 보았다. 太陽人은 呼散之氣 太過로 胃脘이 乾枯해져서 음식물을 잘 넘기지 못하고 吐하는데 嘔吐를 하면 吸聚之氣가 더욱 부족해지게 되므로 病이 더 重하게 될 수 있고 吸聚之氣가 부족한 太陽人에게 泄瀉가 있는 것은 오히려 小腸의 裏氣가 충실한 것을 나타내고, 小便旺多하면 完實無病이라고 하였듯이 小便量이 많고 또한 자주 보면 건강한 상태로 보는데 안으로 끌어들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많을수록 좋다. 太陰人은 肺의 기운을 다루고 太陽人은 肝의 기운을 다루지만 이 둘은 機能的인 개념의 보이지 않는 기능인 氣液之氣를 다루고 少陰人은 脾의 기운을 다루고 少陽人은 腎의 기운을 다루지만 이 둘은 構造的인 개념의 可視的인 기능인 水穀之氣를 다룬다는 배경에서 四象人을 구분한다.

四象人의 病證은 水穀之氣와 氣液之氣로 설명할 수 있는데, 脾胃의 大小로 결정되는 少陰人과 少陽人은 水穀之氣障碍로 病증이 발생하며 肝肺의 大小로 결정되는 太陰人과 太陽人은 氣液之氣障碍로 病증이 발생한다. 少陰人은 水穀之氣의 출납에서 생기는 寒으로 인하여 속이 冷한 胃寒病證이 있으므로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도와 속을 덥혀주고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도록 하며, 少陽人은 納入之氣가 많고 出放之氣가 적으므로 水穀之氣 出납에서 생기는 胃熱便秘를 풀어 주고 예방하며 保命之主인 陰清之氣를 도와주고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太陰人은 吸聚之氣는 많고 呼散之氣는 적어 기운이 안으로 쌓여 內鬱되는 생리현상을 보이므로 保命之主인 呼散之氣를 도와주어 내올린 氣液의 순환과 소통을 도와 喘도 나고 大便도 좋아지고 순환도 잘 되도록 氣液之氣病證을 관리해야 하며 太陽人은 呼散之氣는 많고 吸聚之氣는 적어서 기운이 밖으로만 나가므로 中氣가 虛하고 津液이 고갈되며 下虛上實의 상태이니 固中시키고 保命之主인 吸聚

之氣를 도와 補肝生陰해야 하며 위로 올라가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아래로 내려 小便이 잘 나가도록 해야 한다.

IV. 結 論

1. 證治醫學 醫書에서의 병증설명과는 달리 四象醫學에서 고유하게 나타나고 있는 생리현상 병리현상을 素證이라는 내용에 담아서 四象人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東武의 시도로써 고유한 病증구분과 체질분석을 해보려는 시각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2. 五行 또는 陰陽論의 思考나 概念이 아니라 四元構造的인 분석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인체를 특유하게 관찰하도록 만들어진 내용이며 四體質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분석하고 素證으로 정리해 놓음으로써 四象醫學의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여 理論에서부터 體質病證의 臨床까지 指標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현재 疾病이 없더라도 그러한 可能性의 出現을 예상하고 體質病證運用의 지표로 삼아서, 病證에서 素證을 찾아내거나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體質病證臨床의 지표로 이용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李壽瓊 :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인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Vol.11.No.1, 1999
2.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四象醫學科 :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1999. p.17 18 19 20
3. 李濟馬 著 梁병무 차광석 譯 : 東武遺稿, 서울, 海東醫學社, 1999, p.159 160 167 168 194 195 196 212 220 221 222
4.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124 155 205
5.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 1986